

삼성SDS, 클라우드 매출 42.5% 급증… 체질개선 속도

(3년간)

지난해 2.6조… 전체 비중 19.2%
기업 AI 활용에 클라우드 수요 동반
최근 서비스형 GPU 시장 공략도

삼성SDS가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3년 새 40% 급성장하면서다.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는 외부 기업 고객 확보가 성장률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의 클라우드 사업 매출액은 최근 3년간 42.5% 급증했다. 2023년 1조8807억원에서 2024년 2조3235억원, 2025년에 2조6802억원으로 증가했다. 클라우드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4.2%에서 지난해 19.2%로 높아졌다.

이 같은 사업 호조는 기업 고객들의 AI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확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SD



김종필 삼성SDS 부사장이 지난달 29일 기업·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AX 세미나에서 AI 에이전트 업무 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SDS

S는 2024년 기업용 생성형 AI 기반 협업 솔루션인 '브리티 코파일럿'과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네브릭스' 등을 출시해 산업·금융·공공 시장에 뛰어 들었

다. 이후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클라우드 수요가 동반하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서비스형 GPU(GPUaaS) 시

장도 공략하고 있다. 올해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 'B300'을 탑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업들의 생성형 AI 활용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장치(GPU) 구독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삼성SDS는 GPU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약 4300억원을 들여 경북 구미의 옛 삼성전자 사업장 부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가동 예정 시기는 2029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AI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글로벌 투자회사 KKR(콜버그 크레이비스로버츠)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약 1조22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여기에 삼성SDS가 보유하고 있던 6조원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더해 글로벌 M&A와 AI 관련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관심을

보였다. 증권과 유사한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이에 약 1500억원의 자금을 들여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 1%를 확보하고, 예약결제원의 토큰증권(STO) 플랫폼 사업을 인수했다. 2017년부터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를 통해 쌓아온 금융 IT 인프라 노하우를 확장할 전망이다.

이같은 투자 확대 기조에서 삼성전자와 계열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 구조는 강점으로 꼽힌다. 삼성SDS의 지난해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종속 회사로 전체의 약 70% 비중을 차지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 사업이 내부 수요 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사업과 외부 고객 확보에 따라 기업가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네이버클라우드-엔비디아, '글로벌 AI 팩토리 동맹' 본격화

김유원 대표, 엔비디아 서밋 참석
초거대·피지컬·소버린 AI 확대
내일 이해진-젠슨 황 만남 '주목'

네이버클라우드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에 나선다. 단순한 그래픽처리장치 공급 협력을 넘어 인프라와 모델, 서비스, 피지컬 AI를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서밋에 참석해 엔비디아와의 AI 팩토리 협력 방향을 공개했다.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개발에서 대규모 인프라 운영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

◆ AI 인프라부터 피지컬 AI까지 협력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2일 대만에서 열린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서밋'에서 엔비디아와의 AI 팩토리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

확대

양사는 초거대 AI 모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네이버클라우드-엔비디아의 개방형 거대언어모델인 네모트론3 울트라 기술을 활용해 자체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초거대 언어모델 최적화와 원천 기술 연구 역시

공동으로 추진한다.

피지컬 AI 분야도 협력 범위를 넓힌다. 네이버클라우드-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플랫폼 코스모스를 활용해 서울 전역을 가상 공간으로 구현한 '서울 월드 모델'을 공개했다. 서울 지역에서 수집한 120만장 규모의 파노라마 데이터를 학습시켜 실제 도로 환경과 공간 구조를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이 향후 자율주행과 로보, 드론, 스마트시티 서비스 검증 환경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네이버가 보유한 디지털 트윈 기술과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이 결합하면서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소버린 AI 시장 정조준

네이버클라우드-엔비디아는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 구축에도 나선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데이터 주권을 중

시하는 소버린 AI 구축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네이버의 클라우드와 AI 모델, 운영 역량을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AI 산업이 모델 중심에서 추론 중심의 AI 팩토리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며 "AI 생태계 전 영역을 직접 운영해 온 네이버클라우드가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단순 공급 관계를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를 함께 확장하는 전략적 협력"이라며 "향후 아시아 시장의 폭발적인 AI 수요를 뒷받침하는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역시 네이버를 핵심파트너로 평가했다. 라즈 미르푸리 엔비디아 글로벌 AI 클라우드-인프라 부문 부사장은 "AI 팩토리는 가속 컴퓨팅과 모델,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가 유기적

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고객들이 소버린 AI와 산업용 AI를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해진-젠슨 황 회동 주목

시장 관심은 양사 최고경영진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오는 5일 서울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에서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젠슨 황 CEO는 이어 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자율주행 로봇과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직접 둘러볼 것으로 전해진다.

IT업계 관계자는 "AI 경쟁이 모델 중심에서 인프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협력은 단순 기술 제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소버린 AI와 피지컬 AI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연합 전선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7개월 만에 '심플 랩' 고객 아이디어 1만 건 돌파

고객과 함께 서비스 경험 만들어
실제 서비스에 약 10% 의견 반영

LG유플러스는 고객 참여형 서비스 '심플 랩'에 접수된 고객 아이디어가 7개월 만에 1만 건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심플랩은 고객과 함께 서비스 경험을 만들어가는 양방향 참여형 플랫폼이다. 브랜드 철학 '심플리 유플러스'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개시했다. 매월 발표하는 이달의 주제 또는 자유 주제로 고객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고객 의견은 1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약 10%를 실제 서비스 개선에 반영했다.

고객 의견을 반영해 자녀 통신요금 관리 기능을 통합 앱 '유플러스 윈'에 도입한 것도 사례로 꼽힌다. 기존에는 자녀의 통신 요금을 조회하거나 휴대폰 분실 시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고객 참여형 서비스 심플 랩(Simple Lab)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고 시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했다. 도입 이후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서 선택 약정 신청까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례는 즐겨찾기 기능 도입이다. 요금 조회나 회선 관리 등 기능이 앱 내 여러 메뉴에 분산돼 원하는 기능을 찾기가 불편함이 있었다. 이용 패턴이 각

각 달라 확실적인 구조로는 개인화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통합 앱 유플러스 윈에서 최대 5개까지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설정해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홈·모바일 통합 요금제와 로밍 서비스 등에서 고객 의견을 반영하기도 했다.

/조민선 기자

"개인정보 유출,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중"

티빙,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접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회원 ID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가운데 회사는 유출 사실을 공지했으며,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3일 티빙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내 공지를 올렸으며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 접수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규모와 책임 범위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는 이날 새벽 신원 미상의 해커가 티빙의 개인정보 저장 데이터베이스(DB)에 무단 접속해 관련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면서 발생했다. 티빙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인가된 접근으로 인해 회원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고 인지 직후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ID,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이밖에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결제 관련 유효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티빙의 월간활성이용자(MAU)가 500만명 인파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티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티빙과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조민선 기자